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적정기술의 의미와 활용: 현장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적정기술운동의 한계와 과제

김 동 훈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A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ield worker, I would like to discuss on following. Recently, appropriate technology is gaining more famous among many Kore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institutions, researchers, and students. But I believe the voices from the field are not heard enough. There exists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Therefore, I really wish to develop those tradition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and empower indigenous people.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understand better on what the field is and what is going on there. It is not a matter of how good technology you have; it is rather how to utilize i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utilize the technology without having in-depth and appropriate understanding about the field.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using appropriate technology to all problems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Hence, we need to start thinking how we approach the issues. Since the movement of spreading appropriate technologies is at an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olid foundation promoting appropriate technologies. There are still outstanding issues to resolve such a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center,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development NGO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appropriate technologies, educ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workers those who devote themselves to disseminate appropriate technologies.

적정기술이 세간의 화두이다. 그러나 적정기술은 유행으로 그치기엔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만만치 않다. 만약 적정기술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 현재 적정기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일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을 다루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적정기술운동에 어떻게 현장적인 관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냈으므로써, 적정기술이 유행이 아닌 대안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자 적어본다.

1. 왜 우리는 적정기술에 눈이 번쩍 뜨였을까?

2007년에 처음으로 문헌을 통해 ‘적정기술’이란 단어를 접하고 몇 건의 사례설명을 보게 되면서 ‘아하!’ 하는 경탄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정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와 유사한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적정기술이란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매력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감히 정답을 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아닐까 싶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면서 방법상의 명료함이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가시성 있는 해결수단이면서 지역사회가 감당하기에도 충분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등등의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 수 있는 공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적은 투자로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며 주민생활개선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및 보급정책을 통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등등. 전반적으로 빈곤퇴치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보는 기분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복잡하면서도 주관적인 사회문제를 다루는 인문학도들에게는 적정기술이 자신들이 잘 모르는 과학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빈곤문제 같은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던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적정기술이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 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면서 공신력 있는 방법이 나타난 것이기도 해서 관련자 누구에게나 희소식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한 명 빠진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적정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현지주민들! 과연 수혜자들이 될 현지주민들은 적정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동

등한 수준의 매력을 느낄까? 우리가 느낀 만큼 그들에게도 적정기술은 파격적으로 다가올 것인가?

2.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적정기술

먼저 우리 주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제개발협력력을 하는 우리는 늘 상 ‘현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사는 ‘현지인’일 뿐이다. 해외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 삶을 먼저 돌아본다면 의외로 쉽게 단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선조들의 지혜 또는 생활인들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적정기술들이 많이 있어왔다. 벚집으로 만든 ‘계란꾸러미’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계란을 어떻게 포장하는가의 문제는 포장과 물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이면서도 적절한 유통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국의 계란꾸러미는 자원의 재활용과 지속가능성, 미적우수성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 우리 계란꾸러미의 우수성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계란꾸러미는 형태와 구조를 노출시킨 아름다움, 깨지지 않게 내용물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기능성, 그리고 포장 내용을 남에게 알려주는 정보성의 세가지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고 있는 포장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²⁾

계란꾸러미 이외에도 양파유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양파망’,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례로는 세제를 쓰지 않고 세탁력을 높여주는 ‘친환경세탁발’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화장실’ 등도 적정기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산업화된 기술로는 무역에 있어 필수요소인 ‘컨테이너’ 역시 어느 트럭운전기사의 아이디어를 통한 디자인으로 물류이동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중요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기술의 하나로써 한국의 유구한 전통 속에 존재해 온 ‘토착기술’들도 유용하다. 음식을 잘못 먹고서 체했을 때 비늘로 손을 따는 민간요법이나 우리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 등은 조상들이 만들어나갔던 고유의 적정기술 지식체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조상들의 기술이 현대의 기술을 앞지르는 수가 있는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이면서 국보5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海印寺)의 ‘장경판전(藏經板殿)’은 팔만대장경을 600여년간 보관하고 있으면서 목재경판들이 부식되지 않게 보호하는 자연적인 온습도조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경판전의 화재를 우려하여 현대 건축기술로 새로운 보관소를 지었으나 온습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³⁾

이렇듯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의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서구사회에서 유행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유입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러했다면 다른 모든 사회, 문화, 민족 등도 자신들만의 적정기술을 발전시켜 왔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현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외부원조와 상관없이, 현지인들의 절실한 필요에 기반하였고,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었으며, 현지인들의 철학에 기반하였고, 현지의 자원을 이용한 나름대로의 기술을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의 외부인으로서 현지에 들어가 기술로 원조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현지인들의 욕구, 역량, 문화, 역사 등 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지인은 적정기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이기보다, 적정기술에의 진정한 수요를 발견하게 해주며, 적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정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시행하는 중요한 협력자이자 사업의 주체이다. 이렇듯 현지인의 입장과 그들의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적정기술의 성공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 글들을 통해 우리가 감탄했던 적정기술들이 국제개발협력의 현장관점에서 또는 현지인들의 삶의 공간인 현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

국제개발협력에 여러 평가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방법들은 다 제쳐두

고서라도 현장실무자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 프로젝트가 잘 되었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만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같은 교육시설을 현지에 지었다면 나의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만약 보건소나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지었다면 내가 아플 때 직접 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지어준 학교가 있어도 현장활동가들의 자녀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어준 의료시설이 있어도 현장활동가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나 도심의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제시한 삶의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적정기술은 어떠한가? 식수개발을 위한 적정기술을 보더라도 ‘라이프스트로’로 정수해서 마시거나 ‘큐드림’으로 물을 길어오거나 ‘플레이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수혜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소득이 증대하여 삶의 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적정기술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수돗물이나 생수, 정수기를 쓰지 않고 여전히 라이프스트로나 플레이펌프를 사용할 것인가? ‘세라믹냉장고’로 야채를 보관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전기냉장고를 사지 않고 도자기를 만들어 활용할 것인가? 자가충전하던 ‘라이프라디오’를 쓰던 사람들은 돈을 벌고 나서도 여전히 태양광으로 충전하거나 열심히 자가발전기를 돌리며 라디오를 들을 것인가?

우리가 안 쓰는 기술, 앞으로도 안 쓸 기술들을 그들에게 쓰게 하는 일은 장기적이고 현장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적정기술이 지금 선진국들이 누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풍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적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수 있다. 적정기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적정기술이 다루는 대상이 기술적 요소를 포함한 좀 더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기술들은 그 기술 자체가 가지는 공학적 효용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는 수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공여자와 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적정기술이 진정으로 ‘적정’ 하기 위해서는 적정기술운동가들이 현지 사회의 ‘욕구(Wants)’와 ‘필요(Needs)’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며, 적정기술운동가들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방식 또한 ‘적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정기술이 더 이상 공학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과 인생관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그 구성에 있어 기술상의 공학적 설계들과 더불어 ‘적정기술의 인문학’이라고 부를만한 지식체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운동가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문하는 것은, 기술을 중심으로 처방하게 되면 단기간의 실적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전해준다고 하지만 실상 ‘적정기술’이라는 불리는 또 다른 물고기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국제기구나 개발NGO들을 위한 납품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쓰이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지금 한국사회에서 적정기술이 관심을 받는 데에는 새로운 인도주의 용품을 넘어선 발전대안(Development Alternative)에 대한 갈증이 자리잡고 있다. 적정기술이 ‘진화한 자선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발전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심화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기술은 ‘적정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기술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적정기술이 빈곤을 퇴치한다?

해외의 성공적인 적정기술 사례들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매체를 통해 좀 더 많은 적정기술 적용의 실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볼 수 있는데, 적정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치중하다보니 ‘적정기술에 동원된 기술이 현지의 빈곤을 퇴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시키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프리카에서 ‘머니메이커(Money-maker)’를 만들어 성공한 ‘킥스타트(Kick-start)’의 경우, 같은 금액의 액수를 무상원조로 현지에 주는 것보다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 1인당 빈곤퇴치 비용이 1/3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표를 통해 보여준다. 이외에 킥스타트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통계와 성과, 수상실적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적정기술의 경이적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머니메이커 자체가 빈곤을 퇴치하는 핵심인가 하는 것이다. 머니메이커를 둘러싼 상황들을 생각해보자. 실제 상황은 한 농부가 자기 돈으로 머니메이커를 구매함으로써 빈곤퇴치가 보장이 되는 구조는 아니다. 농부와 그의 가족에게는 머니메이커를 살 수 있는 능력, 이를 지속성 있게 관리할 능력, 이 기계를 이용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 증대된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 능력, 잉여농산물의 거래를 통해 생긴 소득으로 자본을 축적할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 언급되지 않는 요소로는 모든 과정에서 농부가 문맹이 아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나 재해로 인해 농사 자체가 망쳐서는 안 되고, 해당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

빈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머니메이커는 아주 유용한 빈곤퇴치의 시작점이긴 해도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빈곤퇴치의 핵심은 머니메이커를 구매한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적정기술의 유용성을 강조한 나머지 빈곤퇴치에 관련한 다양하면서도 복합적 요소들을 단순화시키게 되면 적정기술이 만병통치약으로 비춰지게 되기 쉽다.

적정기술의 실제 효과에 대해 서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학적 기술아이템 중심의 서술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정기술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적정기술운동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머니메이커가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은 머니메이커를 다루는 키스타트의 철학, 비전, 정책, 접근방법 등이다. 우리가 배우고 개발해야 할 것은 개별 적정기술을 포함하여 적정기술단체들이 가진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 자체이다.

또한 기술아이템 중심으로 서술하더라도 해당 적정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된 지역사회의 상황과 더불어 설명될 수 있다면 기술 중심의 서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공한 적정기술은 도움을 받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적합했기 때문에 성공이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필요로 했던 지역사회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서는 해당 기술만으로 적정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해당 적정기술이 서술되어야만 특정지역에서 성공한 기술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기술 자체의 효과성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성이 합쳐진 총합이기 때문이다. 적정기술(技術)에는 적정기술(記述)이 필요한 것이다.

5. 적정기술이 먼저인가? 적정접근이 먼저인가?

국제개발협력현장에서는 다음과 상황에 쉽게 접하게 된다. 농사에 조예가 있는 어떤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저개발국가의 농촌지역에 가서 살펴보니 주민들의 농사짓는 방식이 너무 후진적이어서 이를 바꾸면 빈곤퇴치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어서 주민들에게 선진적인 방식으로 바꾸라 이야기해도 쉽게 이행되지 않는다. 방식만 바꾸어도 수확량이 올라갈 것이 뻔한데도 현지 주민들은 잘 바꾸려하지 않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자원봉사자는 주민들의 무지, 게으름, 보수성에서 심하면 민족성까지 탓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주민들이 농사방식을 잘 바꾸려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다만 그 이유들을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사전에 이해하고 있지 못함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의 가능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다.

첫째, 새로운 농사방식을 이야기 하는 그 한국인 자원봉사자 자체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가 없는 경우이다.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채 얘기하는 풋내기라고 보거나, 마을과 오랜 관련이 있어도 출퇴근하는 식으로 정작 마을사람들과의 유대가 약하거나 또는 그 마을에 오래 살았어도 삶의 방식이 마을사람들에 비호감이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는 그의 말투나 조언을 한 경로 등이 마을의 문화에 맞지 않아 불신을 심어줄 수도 있다.

둘째, 새로운 농사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한국인 자원봉사자에게 설명하면서 토론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개발원조들이 늘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하는 듯해도 결국에는 돈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외부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서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해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때, 주민들로서는 문제상황들이 떠오르더라도 굳이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누구나 쉽게 실험적인 농사방식에 자기 땅과 노동력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일이라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보상을 우리 쪽에서 사전에 약속해주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내려온 농사방식을 쉽게 바꾸려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야 한국에서 우리 방식이 성공한 것을 보아왔지만 현지 주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방식에 자신의 생계를 내맡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농사방식의 문제는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여러 문제 중 외국인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높은 우선순위의 사업이 아니어서 농사방식에 관한 문제제기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우리 외국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외의 상황에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이다.

위 모든 사례들의 전제는 한국인 활동가가 조언한 한국의 농사방식이 100%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정말 우리 농사방식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도 100%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사 한국식의 농사방식이 100% 확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지역사회에 이식하려는 과정 자체는 농사방식과는 별개의 문제이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인 것이다.

적정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적정기술 자체는 한국의 뛰어난 공학도들이 만든 훌륭한 작품일지는 몰라도 이 기술을 현지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의 우수함만으로는 실현시키기 힘든 또 다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양쪽 모두에 실질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빈곤 퇴치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래 한국의 상황에서도 여러 적정기술운동가들이 처음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지 이전과정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적인 고민과 관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적정기술은 그냥 ‘기술’에 그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다.

6. 적정기술운동가가 필요하다!

기술에 재능있는 공학도들에게는 다소 서운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적정기술은 기술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이 없으면 적정기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술은 저개발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에 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의 관점을 제대로 갖춘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기술운동을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적정기술운동을 양성한다는 것은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수

료생들을 많이 배출하자는 뜻 정도가 아니다. 적정기술운동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기술이 어떻게 해야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적정기술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기술이 추구하는 적절한 삶의 방식을 적정기술운동가들이 스스로 추구하여 보여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국제개발협력 속에서는 저개발국가의 빈곤퇴치를 주제로 하면서 ‘매년 비싼 호텔에 모여 작년에 했던 비슷한 얘기를 이번에도 다시 하는 국제회의가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다. 적정기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의 혜택 속에 안주하면서, 저개발국가의 주민들에게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적정기술을 활용하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의 운동은 그 뿌리가 튼튼히 내리기 힘들 것이다.

적정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일수도 있겠지만, 기술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인문적 소양을 쌓아야 하고, 적정기술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하며, 자신의 삶으로써 적절한 삶의 양식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적정기술의 활용을 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을 가진 적정기술운동가들이 양성되어야 적정기술이 ‘한비야 효과’ 및 ‘반기문 효과’로 국제개발협력에 동경심을 가지게 된 여러 청년들의 지식소핑을 위한 상품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적정기술의 주류화 전략을 고민하자

적정기술이 성공한다는 것은 특정한 적정기술기관이 성공한다는 것을 넘어 많은 관련자들이 적정기술을 주요 접근법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지주민들이 스스로 적정기술을 운용할 역량을 획득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기술 도입 초기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각자 기관들의 성공을 넘어 적정기술을 어떻게 주류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해보고자 해본다.

첫째로, 국내에 적정기술 생태계라 불릴만한 ‘업계’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기술과 관련된 부문은 공학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기업, 기업사회공헌, 환경운동, 귀농운동 등 국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적정기술 관련자원들을 발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동력과 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진지를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한국 적정기술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서적출판과 연구지 발간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등 의식적인 연대운동들을 벌여 공동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다.

둘째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연대가 구체화되어야 하겠다. 궁극적으로 한 적정기술 기관이 현장성과 기술력을 모두 가지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국내 적정기술의 선도자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장성, 지역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우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적정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면서도 공학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의 실질적인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양 진영의 관련자들을 의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로, 적정기술의 개발노력과 더불어 적정기술의 보급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하겠다. 국내에 여러 적정기술 관련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적정기술에 대한 학습이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장의 관점에서는 현지의 문제에 대해 이미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다. 인터넷만 찾아보아도 해외의 우수한 적정기술기관들에서 여러 방식의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이미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통로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적정기술의 개발만큼이나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존의 적정기술들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기술정보센터 내지 적정기술보급센터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로, 적정기술기관과 개발NGO들간의 실질적인 사업파트너십 구축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의 이상의 개발NGO들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 숫자는 한국의 개발NGO들이 전세계에 걸쳐 최소 100여개 이상의 현장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진 현지사업장과 현장사업에 대한 경험은 우리 적정기술운동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성과 현장성의 중요한 자원보고이다. 두 진영 간의 장점을 결합한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이 계속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개발NGO 관련자들이 적정기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개발NGO에서는 임직원 개인의 관심에 기반하여 신문기사나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기술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보이며, 적정기술기관들이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같은 연대기구들이나 개별NGO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개발NGO 실무자들에게 적정기술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서로의 이해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정기술운동가들에게 현장에서의 연수기회가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 몇 안되는 한국 적정기술기관들의 실제 사업사례들은 주로 한국 측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현지에 적용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적정기술은 한국에서 뒤늦게 주목받은 것이지 국제개발협력이 수행되어오던 많은 저개발국가들에서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기관들이 이미 많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우리가 개발해서 저개발국에 이식할 수도 있겠지만, 저개발국에서 벌어지는 현존하는 다양한 적정기술의 사례들을 배워오고 다시 적용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적정기술운동가들이 한 번이라도 더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을 보고, 타기관들의 실제 적정기술 적용현장들을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국내의 수많은 해외연수프로그램들에서 적정기술이 주요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

8. 글을 마치며

누군가 “적정기술! 기술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렇게 되면 세계빈곤문제는 우리 공학도와 기술자들에게 맡기고 필자 같은 현장형 실무자들은 길거리로 나왔으면 된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다행히도 계속 월급받을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 ‘적정기술’에서 ‘적정’의 부분에는 아직도 우리같은 현장실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적정기술이 국내에서 소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인지 적정기술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이나 기술만능주의의 시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적정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동경 분위기 속에서 판지를 걸 용기가 나지는 않고, 딱히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은 필자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과정에서만 무엇인가 ‘2% 부족함’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한다. 지금의 적정기술운동에서 ‘부족한 2%’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통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고들 말씀하시는데, 남의 인생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적정기술이 너무 단순명쾌한 답을 주는 것 같아 거기에서 오는 웬지 모를 불안함이라 본다. 그 불안함의 원천은 철학이나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장성이나 지역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족한 2%’는 비율상으로는 작은 것일 수 있어도 적정기술운동이 성공하는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적정기술을 개발하는 팀에서도 ‘상상력’을 발견했습니다. 적정기술은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적절한 가격의 상품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 평생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바람이 녹아 들어야 하고 더 발달된 기술을 경험한 외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물을 뜨러 다니는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고민이 없었다면, 줄 하나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동그란 드럼 물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⁴⁾

위 이야기처럼 적정기술운동을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에서도 적정기술은 기술과 더불어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필수로 하고 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같이 느껴지는 가운데 적정함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것은 활동가들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영어를 못해서도 아닌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인류 공통의 과제인 빈곤퇴치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역량을 써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우리의 적정기술운동에서는 어떤 점을 강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아직 국내에는 수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이들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운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게을리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적정기술은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다고 생각하며, 담론이 풍성해지는만큼 구체적이면서 진전된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적정기술의 확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적정기술 관련자들이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역조사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토착기술은 적정기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기관은 적정기술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등등. 필자와 같은 실무자들은 결국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국면을 빨리 맞고 싶어한다. 이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적정기술을 사이에 두고 연구개발자와 현장실무자들 사이에 고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
- 1)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조계중사회복지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 10년째 국제개발협력, 국제자원활동에 관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팀장이며 '국제개발아카데미' 대표, (국제구호NGO)파비에 운영위원 (국제구호NGO)더프라이스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 2) 이어령 우리문화바람지, 2007, 디자인하우스, p25
 - 3) 동아일보, 2011년 7월 15일,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공개, 대장경 천년의 신비도 열렸다'
 - 4) 조선일보, 2011년 7월 27일, '기회를 여는 상상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허인정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6/2010072601593.html